

창조경제타운 범부처 사업화 연계 지원 현황 분석

이규홍* · 유수현** · 정대현***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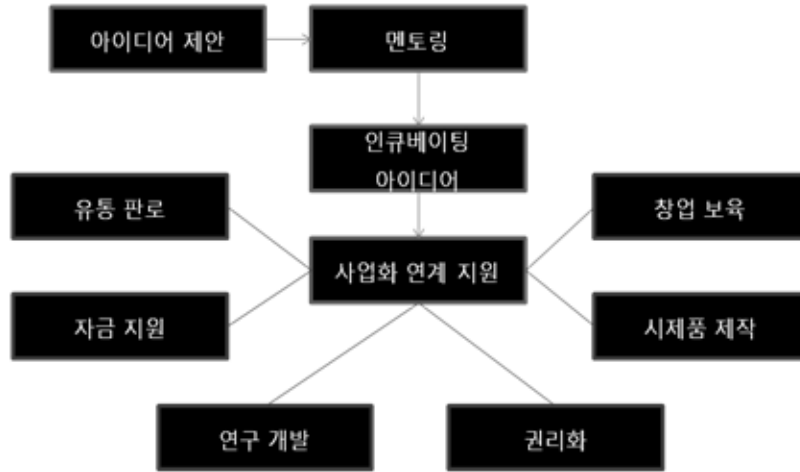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1990년 후반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도시 및 지역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1].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1997년부터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수행해야 할 8개 분야 2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2]. 이러한 관련 정책들은 유럽연합 정책에 반영되었고, 창조산업 등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영연방 네트워크, UNESCO, WIPO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UN은 2008, 2010년 Creative Economy Report를 발간하였고 UNESCO는 문화, 다양성, UNDP는 전문인력, 창의성 개발, ILO는 창조산업과 고용증진, WIPO는 지식재산권, WTO는 GATS 협상 주요의제로 창조산업을 다루고 있다. 영국 DCMS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기술과 재능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의 증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하였다[3].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대학 Stiglitz 교수는 창조경제가 향후 미국 경제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미국 경제 시스템이 생산경제에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4-6]. 이러한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잠재력이 높아 최근 주요국의 정책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국가별, 연구자별로 타 산업 등과의 차별화,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범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민-산학연-정부가 참여하여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사업화 생태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창조경제 성공사례 도출발굴확산을 통해 "창조경제 문화" 창달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이다. 창조경제타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국민의 아이디어는 온/오프라인 멘토링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각 단계별 다양한 범부처/민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범부처 연계사업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자금 등의 우선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성공적인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7].

* 이규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02-3299-6073, kyuhong@kisti.re.kr

** 유수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02-3299-6102, yoosu@kisti.re.kr (교신저자)

*** 정대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02-3299-6238, gregori79@kis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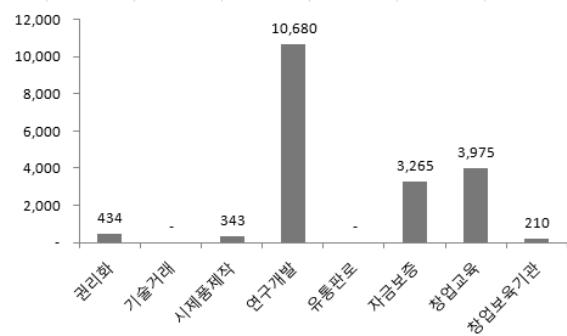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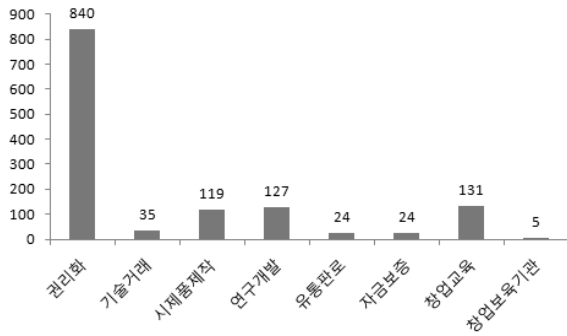
<그림 1>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세스

<표 1> 창조경제타운 주요 연계사업 프로그램

| | 사업명 | 시행기관 | 부처 |
|--------|--------------------|-------------|-----|
| 창업교육 | 양방향 TV 프로그램 | 한국정보화 진흥원 | 미래부 |
| | 스마트미디어 X 캠프 | 한국정보화 진흥원 | 미래부 |
|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 서울혁신센터 | 미래부 |
| |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미래부 |
| |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 | 스마트창업터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 | 연구개발특구이노폴리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미래부 |
| 권리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기술사업화 |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미래부 |
| | 지역지식재산센터 | 발명진흥회 | 특허청 |
| |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 발명진흥회 | 특허청 |
| 시제품제작 | 한국여성발명코리아 | 한국여성발명코리아 | 특허청 |
| | 창업공작소 | ETRI, KRISS | 미래부 |
| | 창의디바이스랩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미래부 |
| | 콘텐츠코리아랩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부 |
| | 시제품제작터 | 시제품제작터 | 중기청 |
| 창업보육 | 친환경창조경제센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
| |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중기청 |
| 연구개발 | 역외창업보육사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진청 |
| | 창의도전형 SW R&D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미래부 |
|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기청 |
| | 창업맞춤형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 | 창업선도대학 | 창업진흥원 | 중기청 |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부 |
| 기술거래 | 국토교통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부 |
| | 지식재산거래 지원 | 발명진흥회 | 특허청 |
| 자금보증 | 기술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 금융위 |
| | 지식재산 우대보증 | 신용보증기금 | 금융위 |
| | 유망창업보증 | 신용보증기금 | 금융위 |
| 유통판로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중소기업 유통센터 | 중기청 |
| 글로벌 진출 | KIC 워싱턴 | 글로벌 혁신센터 | 미래부 |
| | KIC 실리콘 밸리 | 글로벌 혁신센터 | 미래부 |
| | 글로벌 K-스타트업 | 인터넷 진흥원 | 미래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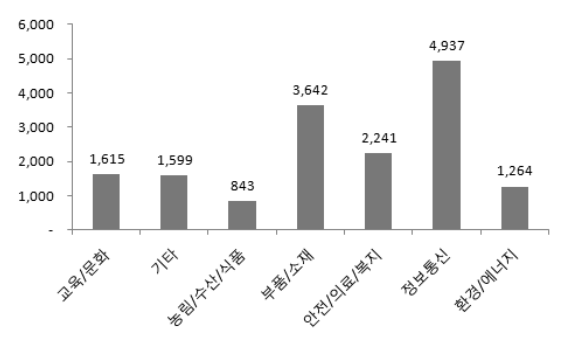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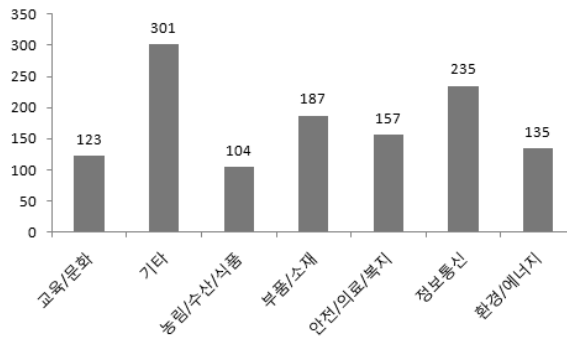
II. 현황분석

2013년 9월 30일 창조경제타운이 오픈한 이후 2015년 9월 22일까지 범부처 사업화 연계 지원을 받은 아이디어에 대해 단계별 사업화 지원 건수를 분석해 보면 아이디어 권리화 단계가 가장 많았고, 지원 금액 측면에서 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연구개발 부분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보육, 자금 지원 부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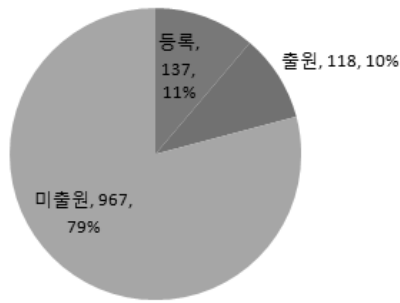
<그림 2>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단계별 지원 건 수 <그림 3>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단계별 지원 금액

지원된 아이디어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부품소재, 환경 에너지 분야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사업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이 약 49억 원, 부품소재 분야가 약 36억 원을 지원 받아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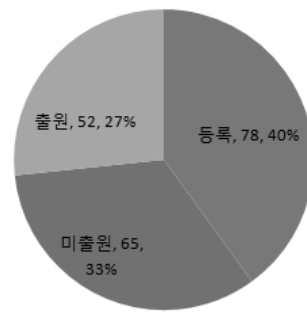


<그림 4>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분류별 지원 건수 <그림 5>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분류별 지원 금액

지원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태를 분석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79%에 해당하는 967건의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화가 구체화 되는 연구개발 단계 이후에 지원된 아이디어의 지재권 상태를 분석하면 <그림 7>에서와 같이 약 67%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 혹은 등록 상태에서 사업화 연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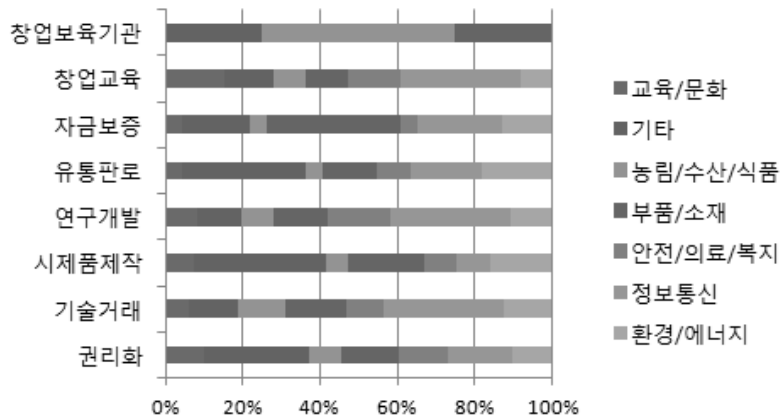


<그림 6>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지재권 현황(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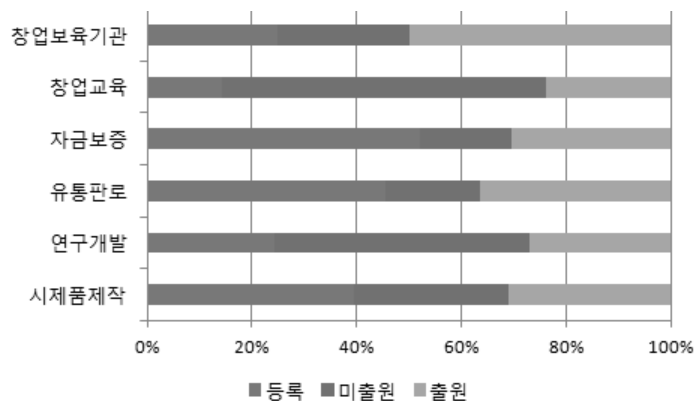
<그림 7>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지재권 현황(연구개발 단계 이후)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유형별/사업화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보육기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교육, 연구개발, 기술거래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 자금분야, 유통판로, 시제품 분야의 경우 부품/소재 분야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연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유형별 사업화 단계별 비중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단계별/지재권 현황별 분포를 살펴보면, 창업보육기관, 자금보증 및 시제품 제작 부분이 지재권 확보 상태에서 사업화 연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별 지재권별 비중

III. 결론

2013년 10월에 창조경제타운 오픈 이래 2만여 건의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되었으면 이중 1,300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재권 확보에 가장 많은 연계가 진행되었으며, 지원 금액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자금지원 그리고 창업보육 지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분류별로는 정보통신과 부품/소재 분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연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재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재권 확보 비율이 높지 않지만, 본격적인 사업화가 진행되는 연구개발 단계 이후부터는 지재권 확보 이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 중 사업화 단계별로 지원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화 초기단계에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부품소재와 정보통신 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재권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 지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확보된 지재권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양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ICT 기술과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수산/식품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ICT 융합 기술 촉진 등과 같은 정부 시책에 대응하여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은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과 개인의 창의성, 융합을 촉진하여 신성장동력 및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1차 산업 그리고 아이디어 초기 단계에서의 지재권 확보 측면에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John Howkins,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2001.
- [2]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The UK Strategy for the Creative Industrie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1997.
- [3] 박성호, “창조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vol.26, no.3, 2012
- [4] Creative Economy Report, UNDP & UNCTAD, 2008.
- [5] Creative Economy, UNDP & UNCTAD, 2010.
- [6] 차두원, 유지연,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7] 정도범, 김성진, 송용준, 황영현,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확산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타운의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2015